

「2025 NEAR 회원정부 워크숍」 관련 보도자료 스크랩

2025.3.18.(화)

번호	구분	매체명	제목	비고
1	신문	대경일보	동북아지방정부연합, 경주 APEC 추진계획 공유·홍보	
2	신문	스카이데일리	한·중·일 등 6개국 지자체 “동북아 문제 함께 해결” -동북아지방정부연합워크숍 90곳 참가 제주서 성료	
3	인터넷	시사뉴스	경상북도, 2025 NEAR 회원정부 워크숍 성황리 개최	
4	인터넷	꿈지환경뉴스	경북도 2025 NEAR 회원정부 워크숍 성황리 개최	
5	인터넷	케이투데이	2025 NEAR 회원정부 워크숍 성황리에 열어	
6	인터넷	데일리대구경북뉴스	동북아지방정부간 공동발전 위한 교류협력 방안 모색하다!	
7	인터넷	정도일보	경북도 2025 NEAR 회원정부 워크숍 성황리 개최	
8	인터넷	비건뉴스	경북도 2025 NEAR 회원정부 워크숍 성황리 개최	
9	통신사	포탈뉴스통신	경북도 2025 NEAR 회원정부 워크숍 성황리 개최	
10	통신사	서울뉴스통신	2025 NEAR 회원정부 워크숍 성황리 개최	

한·중·일 등 6개국 지자체 “동북아 문제 함께 해결”

동북아시아정부연합위크숍 90곳 참가 제주시 성료
유화생·문화 교류 등 협력... 경주 APEC 개최 홍보도

동북아시아정부연합(NEAR)은 제 롯데호텔에서 12일부터 14일까지 2025 EAR 회원정부 위크숍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NEAR 동북아 8개국 90 광역지방정부의 연합조직인 6개국(중·일본·한국·몽골·러시아·키르기스스탄) 개 광역지방정부 6개 유관기관 공무원 총 120여 명이 참석했다.

NEAR 회원정부 위크숍은 회원정부 류와 인적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당해 사 계획 및 회원정부의 성공적 정책을 치마킹하기 위해 매년 개최하는 행사 다. 과거 실무자 중심에서 부지사, 국장급 부 등 고위급까지 범위를 확대하고, EAR 회원단체 간 교류를 증진하는 시 을 별도로 마련하는 등 참석 대상과 행 구성 측면에서 차별점을 두었다.

개회식에서는 임병진 NEAR 사무총장 개회사와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환영 를 시작으로 △박성만 **경북도** 의

장 (순회권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 부위 원장 대독), 지노비에프 주한 러시아대사, 이희섭 TCS 사무총장, 천철훈 주제주 중 국총영사, 다케다 가쓰토시 주제주일본 총영사가 축사를 하는 등 지방정부뿐 아 니라 국가 차원에서도 NEAR에 대해 관 심과 지지를 표명했다.

이어 열린 위크숍에서는 △2025년 NEAR사무국 주요업무 보고 △2025년 개최하는 제15차 NEAR 총회(중국 라 오닝성), 청년정책 분과위원회(러시아 크 라스노야르스크주) 등 주요행사보고 와 △**경북도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 행사 준비 동향, 광주광역시와 광주세계양궁선수권대회 등 회원정부 국 제행사 추진 계획 및 홍보 사항 발표가 있었다.

또 △사무국에 바라는 제안 사항 및 동 북아가 공동으로 직면한 문제에 대한 회 원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시책이나 제안 에 관하여 발표 및 토의가 있었다.

또한, 이번 회원정부 위크숍에서는 회원



동북아시아정부연합은 제주 롯데호텔에서 12일부터 14일까지 2025 NEAR 회원정부 위크숍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정부의 사전 신청을 받아 회원정부 간 일 대일 양자교류의 장을 마련, 총 10개 회원 정부가 외국인 유학생 유치, 경제통상·문 화·예술 등 교류협력을 희망하는 다양한 분야에 걸쳐 일대일 소통을 했다.

이로써 회원정부가 동북아 지방정부 간 다자교류 플랫폼인 NEAR의 유용성을 더욱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

한편, 회원정부 위크숍 개최에 앞서 진

행한 'NEAR 한국 회원정부 국제관계대 사 간담회'에서는 한국의 시도 국제관계 대사 13명과 실무담당 13명이 참석해 '동 북아 최대 광역지방정부 간 다자교류 플 랫폼인 NEAR 내실화를 위한 발전 방향' 에 대해 논의했다.

참가자들은 동북아 지방외교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동북아 지방정부 간 중요 한 교류협력 플랫폼인 NEAR를 적극 활

용해 동북아 회원정부 간 다자교류 활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어야 한다는 데 을 모았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NEAR사무국은 이번에 논의한 NEAR 발전방안에 대한 의견을 종합해 사무 운영에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NEAR사무국은 행사 참여지 에게 경주 APEC홍보자료 배포, AP 홍보 동영상 상영, **경북도** 국제관계 사의 APEC준비동향 발표 등으로 경 APEC행사를 적극 홍보했다.

임 사무총장은 “이번 행사는 참가 호 정부(6개국 46개), 고위급 참석자(지사, 지사 5명, 국장급 26명) 면에서 역대 최 최고 규모로, 행사의 격이 높아졌을뿐 니라 주한 러시아대사 등 6개 유관기관 참석해 NEAR의 유용성과 국제적 우 이 제고 됐다”고 말했다.

강석희 **경북도** 국제관계대사는 NEAR 회원 정부 발표 시간에 2025년 APEC 상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한국의 과 현재와 미래를 모두 느낄 수 있는 인성 인 도시 경주에서 APEC 정상회의가 고의 성과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한 며 동북아시아지방정부연합 회원국의 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2025 동북아시아지방정부연합 회원정부 워크숍에서 참석자들이 단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동북아시아지방정부연합 제공

동북아시아지방정부연합, 경주 APEC 추진계획 공유·홍보

제주서 6개국 참여 워크숍 개최
외국인 유학생 유치·경제 통상
회원정부간 교류분야 소통 진행

동북아 8개국 90개 광역지방정부의 연합조직인 동북아시아지방정부연합(NEAR, 사무총장 임병진)은 12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제주 롯데호텔에서 6개국(중국, 일본, 한국, 몽골, 러시아, 키르기스스탄) 46개 광역지방정부, 6개 유관기관 공무원 등 총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NEAR 회원정부 워크숍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NEAR 회원정부 워크숍은 회원정부 간 교류와 인적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급변도 행사 계획 및 회원정부의 성공적 정책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매년 개최하는 행사이다.

이번 행사는 과거 실무자 중심에서

는 등 참석 대상과 행사구성 측면에서 차별점을 두었다.

개회식에서는 임병진 NEAR 사무총장의 개회사와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경상북도의회 박성만 의장(손희권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 부위원장 대독), 지노비에프 주한러시아대사, 이희섭 TCS 사무총장, 천재원 주제주중국총영사, 다케다 가즈토 시 주제주일본총영사가 축사를 하는 등 지방정부뿐만 아니라 국가차원에서 NEAR에 대해 관심과 지지를 표명하였다.

이어서 열린 워크숍에서는 △2025년 NEAR사무국 주요업무 보고 △2025년

고와 △경상북도의 APEC 행사준비 등 항, 광주광역시외의 광주세계유산수권 대회 등 회원정부 국제행사 추진계획 및 홍보사항 발표가 있었으며, △사무국에 바라는 제안사항 및 동북아가 공동으로 직면한 문제에 대한 회원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시책이나 제안에 관하여 발표 및 토의가 있었다.

또한, 이번 회원정부 워크숍에서는 회원정부의 사전 신청을 받아 회원정부간 일대일 양자교류의 장을 마련, 총 10개의 회원정부가 외국인 유학생 유치, 경제통상, 문화, 예술 등 교류·협력 을 희망하는 다양한 분야에 걸쳐 일대 일 소통하였다. 이로써 회원정부가 동

경상북도, 2025 NEAR 회원정부 워크숍 성황리 개최

- 동북아 6개국 46개 광역지방정부 6개 유관기관 참여... 동북아지방정부간 공동발전을 위한 교류협력의 場 마련 -

하정수 ha771008@naver.com

등록 2025.03.14 02:58:26



[시사뉴스 하정수 기자] 동북아 8개국 90개 광역지방정부의 연합조직인 동북아시아지방정부연합(NEAR)(사무총장 임병진)은 2025년 3월 12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제주 롯데호텔에서 6개국(중국, 일본, 한국, 몽골, 러시아, 키르기스스탄) 46개 광역지방정부, 6개 유관기관 공무원 등 총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NEAR 회원정부 워크숍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NEAR 회원정부 워크숍은 회원정부간 교류와 인적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금년도 행사 계획 및 회원정부의 성공적 정책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매년 개최하는 행사이다.

이번 행사는 과거 실무자 중심에서 부지사, 국장급 간부 등 고위급까지 범위를 확대하고, NEAR 회원단체 간 교류를 증진하는 시간을 별도로 마련하는 등 참석 대상과 행사구성 측면에서 차별점을 두었다.

개회식에서는 ▲임병진 NEAR 사무총장의 개회사와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경상북도 의회 박성만 의장 (손희권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 부위원장 대독), 지노비예프 주한러시아대사, 이희섭 TCS 사무총장, 천젠원 주제주중국총영사, 다케다 가쓰토시 주제주일본총영사가 축사를 하는 등 지방정부뿐만 아니라 국가차원에서도 NEAR에 대해 관심과 지지를 표명하였다.

이어서 열린 워크숍에서는 ▲2025년 NEAR사무국 주요업무 보고 ▲2025년 개최하는 제15차 NEAR 총회(중국 랴오닝성), 청년정책 분과위원회(러시아 크라스노야르스크주) 등 주요행사보고와 ▲경상북도의 APEC 행사준비 동향, 광주광역시의 광주세계양궁선수권대회 등 회원정부 국제행사 추진계획 및 홍보사항 발표가 있었으며, ▲사무국에 바라는 제안사항 및 동북아가 공동으로 직면한 문제에 대한 회원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시책이나 제안에 관하여 발표 및 토의가 있었다.

또한, 이번 회원정부 워크숍에서는 회원정부의 사전 신청을 받아 회원정부간 일대일 양자교류의 장을 마련, 총 10개의 회원정부가 외국인 유학생 유치, 경제통상, 문화, 예술 등 교류.협력을 희망하는 다양한 분야에 걸쳐 일대일 소통하였다. 이로써 회원정부가 동북아 지방정부 간 다자교류 플랫폼인 NEAR의 유용성을 더욱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회원정부 워크숍 개최에 앞서 진행된 「NEAR 한국 회원정부 국제관계대사 간담회」에서는 한국의 시.도 국제관계대사 13명과 실무담당 13명이 참석하여 '동북아 최대 광역지방정부 간 다자교류 플랫폼인 NEAR 내 실화를 위한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참가자들은 동북아 지방외교가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동북아 지방정부 간 중요한 교류협력 플랫폼인 NEAR를 적극 활용하여 동북아 회원정부간 다자교류 협력사업이 활발히 진행되어야 한다는 데에 뜻을 모았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NEAR사무국은 금번에 논의된 NEAR 발전방안에 대한 의견들을 종합, 사무국 운영에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NEAR사무국은 행사 참여자들에게 경주 APEC홍보자료 배포, APEC 홍보 동영상 상영, 경상북도 국제관계대사의 APEC준비동향발표 등으로 경주 APEC행사를 적극 홍보하였다.

임병진 NEAR 사무총장은 "이번 행사는 참가 회원정부(6개국 46개), 고위급 참석자(지사,부지사 5명, 국장급 26명) 면에서 역대 최대, 최고 규모로, 행사의 격이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주한러시아대사 등 6개 유관기관이 참석하여 NEAR의 유용성과 국제적 위상이 제고 되었다."고 말했다.

경상북도 강석희 국제관계대사는 NEAR 회원 정부 발표 시간에 2025년 APEC 정상회의 성공개최를 위해 "한국의 과거, 현재와 미래를 모두 느낄 수 있는 인상적인 도시 경주에서, APEC 정상회의가 최고의 성과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동북아시아지방정부연합 회원국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하였다.

또한,"최근 경쟁과 대립이 부각되고 있는 국제 정세에 이번 워크숍이 회원단체 상호 간 교류와 우호 협력 관계를 더욱 넓히는 네트워크 형성의 장이 되기를 기원하여, 경상북도는 동북아 지방 정부 간 다자교류 플랫폼인 NEAR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하였다.

한편, 동북아시아지방정부연합(NEAR)은 1996년 대한민국 경상북도에서 창설된 동북아시아 지방정부 간 국제기구로 중국, 일본, 한국, 몽골, 러시아, 북한 6개국 90개 동북아 지방정부 간 교류와 협력을 통해 지역의 공동발전과 번영의 실현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올해는 NEAR+2(동남아, 중앙아) 정책을 추진하여 동북아 지방외교의 외연을 더욱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Copyright ©2025 SISA NEWS All rights reserved.

시사뉴스의 모든 콘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홈 문화·교육

경북도 2025 NEAR 회원정부 워크숍 성황리 개최

정해영 기자 jyong1411@naver.com 입력 2025/03/13 14:23 |

0

동북아 6개국 46개 광역지방정부 6개 유관기관 참여...동북아시아지방정부간 공동발전을 위한 교류협력의 장 마련



↑ ↑ 경북도 2025 NEAR 회원정부 워크숍 성황리 개최

[정해영 기자]동북아 8개국 90개 광역지방정부의 연합조직인 동북아시아지방정부연합(NEAR)은 2025년 3월 12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제주 롯데호텔에서 6개국(중국, 일본, 한국, 몽골, 러시아, 키르기스스탄) 46개 광역지방정부, 6개 유관기관 공무원 등 총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NEAR 회원정부 워크숍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NEAR 회원정부 워크숍은 회원정부간 교류와 인적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금년도 행사 계획 및 회원정부의 성공적 정책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매년 개최하는 행사이다.

이번 행사는 과거 실무자 중심에서 부지사, 국장급 간부 등 고위급까지 범위를 확대하고, NEAR 회원단체 간 교류를 증진하는 시간을 별도로 마련하는 등 참석 대상과 행사구성 측면에서 차별점을 두었다.

개회식에서는 ▲임병진 NEAR 사무총장의 개회사와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경상북도의회 박성만 의장 (손희권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 부위원장 대독), 지노비예프 주한러시아대사, 이희섭 TCS 사무총장, 천젠전 주제주중국총영사, 다케다 가쓰토시 주제주일본총영사가 축사를 하는 등 지방정부뿐만 아니라 국가차원에서도 NEAR에 대해 관심과 지지를 표명했다.

많이 찾는 뉴스

최근

주요

- 1 [이창재 김천시장 후보, 성대한 ·
- 2 '김천의 미래, 시민과 함께! 배낙
- 3 [속보] 김천시장 보궐선거, 이창:
- 4 국립경국대학교 출범.. 지역을 논
- 5 구미장미로타리클럽, 강동재가스
- 6 [구태정치의 끝장] 정당한 검증도
- 7 [나영민 김천시의장, 탄핵 반대 ·
- 8 인재와 기업의 요람 K-과학자마
- 9 경상북도의회, '2025 구미아시아
- 10 예천군, 변혁도도 4기 주니어보!

경북관광기업지원센터, 경북 : 업 모집 공모전 개최

경상북도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구축
업지원센터가 경상북도 관광 분야 창

이어서 열린 워크숍에서는 ▲2025년 NEAR사무국 주요업무 보고 ▲2025년 개최하는 제15차 NEAR 총회 (중국 라오닝성), 청년정책 분과위원회(러시아 크라스노야르스크주) 등 주요행사보고와 ▲경상북도의 AP EC 행사준비 동향, 광주광역시의 광주세계양궁선수권대회 등 회원정부 국제행사 추진계획 및 홍보사항 발표가 있었으며, ▲사무국에 바라는 제안사항 및 동북아가 공동으로 직면한 문제에 대한 회원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시책이나 제안에 관하여 발표 및 토의가 있었다.

또한, 이번 회원정부 워크숍에서는 회원정부의 사전 신청을 받아 회원정부간 일대일 양자교류의 장을 마련, 총 10개의 회원정부가 외국인 유학생 유치, 경제통상, 문화, 예술 등 교류.협력을 희망하는 다양한 분야에 걸쳐 일대일 소통했다. 이로써 회원정부가 동북아 지방정부 간 다자교류 플랫폼인 NEAR의 유용성을 더욱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

한편, 회원정부 워크숍 개최에 앞서 진행된 `NEAR 한국 회원정부 국제관계대사 간담회`에서는 한국의 시.도 국제관계대사 13명과 실무담당 13명이 참석하여 `동북아 최대 광역지방정부 간 다자교류 플랫폼인 NEAR 내실화를 위한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참가자들은 동북아 지방외교가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동북아 지방정부 간 중요한 교류협력 플랫폼인 NEAR을 적극 활용하여 동북아 회원정부간 다자교류 협력사업이 활발히 진행되어야 한다는 데에 뜻을 모았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NEAR사무국은 금번에 논의된 NEAR 발전방안에 대한 의견들을 종합, 사무국 운영에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NEAR사무국은 행사 참여자들에게 경주 APEC홍보자료 배포, APEC 홍보 동영상 상영, 경상북도 국제관계대사의 APEC준비동향발표 등으로 경주 APEC행사를 적극 홍보했다.

임병진 NEAR 사무총장은 “이번 행사는 참가 회원정부(6개국 46개), 고위급 참석자(지사,부지사 5명, 국장급 26명) 면에서 역대 최대, 최고 규모로, 행사의 격이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주한러시아대사 등 6개 유관기관이 참석하여 NEAR의 유용성과 국제적 위상이 제고 됐다.”고 말했다.

경상북도 강석희 국제관계대사는 NEAR 회원 정부 발표 시간에 2025년 APEC 정상회의의 성공개최를 위해 “한국의 과거, 현재와 미래를 모두 느낄 수 있는 인상적인 도시 경주에서, APEC 정상회의가 최고의 성과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동북아시아지방정부연합 회원국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또한,“최근 경쟁과 대립이 부각되고 있는 국제 정세에 이번 워크숍이 회원단체 상호 간 교류와 우호 협력 관계를 더욱 넓히는 네트워크 형성의 장이 되기를 기원하여, 경상북도는 동북아 지방 정부 간 다자교류 플랫폼인 NEAR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한편, 동북아시아지방정부연합(NEAR)은 1996년 대한민국 경상북도에서 창설된 동북아시아 지방정부 간 국제기구로 중국, 일본, 한국, 몽골, 러시아, 북한 6개국 90개 동북아 지방정부 간 교류와 협력을 통해 지역의 공동발전과 번영의 실현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올해는 NEAR+2(동남아, 중앙아) 정책을 추진하여 동북아 지방외교의 외연을 더욱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창간축사] 박판수 :
회 의원**

공지환경비우스 기자 2021/0



**[창간축사] 배낙호 :
추구단 대표이사**

조수연 기자 2021/01/22 22:0



**[창간축사] 김영식 :
회의원**

공지환경비우스 기자 2021/0



정해영 기자 jyong1411@naver.com

다른기사보기

대구 북구 대불스포츠클럽 부키스 유소년 탁구단 홍재이, 임하윤 전국소년체전 탁구 ...

대구시교육청, '청렴콘서트'로 부패방지 및 상호존중 문화 조성예 나선다.

수성구의회 최현숙 의원, 초고령 사회에 적합한 '경로당'명칭 변경 필요성 제기

동북아 6개국 46개 광역지방정부 6개 유관기관 참여...동북아시아지방정부 간 공동발전을 위한 교류협력의 장 마련



NEAR 회원정부 워크숍 단체사진/동북아시아지방정부연합사무국 제공

동북아 8개국 90개 광역지방정부의 연합조직인 동북아시아지방정부연합(NEAR)(사무총장 임병진)은 2025년 3월 12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제주 롯데호텔에서 6개국(중국, 일본, 한국, 몽골, 러시아, 키르기스스탄) 46개 광역지방정부, 6개 유관기관 공무원 등 총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NEAR 회원정부 워크숍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NEAR 회원정부 워크숍은 회원정부간 교류와 인적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금년도 행사 계획 및 회원정부의 성공적 정책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매년 개최하는 행사이다.

이번 행사는 과거 실무자 중심에서 부지사, 국장급 간부 등 고위급까지 범위를 확대하고, NEAR 회원단체 간 교류를 증진하는 시간을 별도로 마련하는 등 참석 대상과 행사구성 측면에서 차별점을 뒀다.

개회식에서는 ▲임병진 NEAR 사무총장의 개회사와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경북도의회 박성만 의장(순회권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 부위원장 대독), 지노비예프 주한러시아대사, 이희섭 TCS 사무총장, 천철헌 주제주중국총영사, 다케다 가쓰토시 주제주일본총영사가 축사를 하는 등 지방정부 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도 NEAR에 대해 관심과 지지를 표명했다.

이어서 열린 워크숍에서는 ▲2025년 NEAR사무국 주요업무 보고 ▲2025년 개최하는 제15차 NEAR 총회(중국 랴오닝성), 청년정책 분과위원회(러시아 크라스노야르스크주) 등 주요행사보고와 ▲경북도의 APEC 행사준비 동향, 광주광역시의 광주세계양궁선수권대회 등 회원정부 국제행사 추진계획 및 홍보사항 발표가 있었으며, ▲사무국에 바라는 제안사항 및 동북아가 공동으로 직면한 문제에 대한 회원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시책이나 제안에 관하여 발표 및 토의가 있었다.

또한, 이번 회원정부 워크숍에서는 회원정부의 사전 신청을 받아 회원정부간 일대일 양자교류의 장을 마련, 총 10개의 회원정부가 외국인 유학생 유치, 경제통상, 문화, 예술 등 교류.협력을 희망하는 다양한 분야

에 걸쳐 일대일 소통했다. 이로써 회원정부가 동북아 지방정부 간 다자교류 플랫폼인 NEAR의 유용성을 더욱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

한편, 회원정부 워크숍 개최에 앞서 진행된 「NEAR 한국 회원정부 국제관계대사 간담회」에서는 한국의 시.도 국제관계대사 13명과 실무담당 13명이 참석해 '동북아 최대 광역지방정부 간 다자교류 플랫폼인 NEAR 내실화를 위한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참가자들은 동북아 지방외교가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동북아 지방정부 간 중요한 교류협력 플랫폼인 NEAR를 적극 활용하여 동북아 회원정부 간 다자교류 협력사업이 활발히 진행되어야 한다는 데에 뜻을 모았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NEAR 사무국은 금번에 논의된 NEAR 발전방안에 대한 의견들을 종합, 사무국 운영에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NEAR 사무국은 행사 참여자들에게 경주 APEC 홍보자료 배포, APEC 홍보 동영상 상영, 경북도 국제관계대사의 APEC 준비동향발표 등으로 경주 APEC 행사를 적극 홍보했다.

임병진 NEAR 사무총장은 "이번 행사는 참가 회원정부(6개국 46개), 고위급 참석자(지사.부지사 5명, 국장급 26명) 면에서 역대 최대, 최고 규모로, 행사의 격이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주한러시아대사 등 6개 유관기관이 참석하여 NEAR의 유용성과 국제적 위상이 제고됐다."고 말했다.

경북도 강석희 국제관계대사는 NEAR 회원 정부 발표 시간에 2025년 APEC 정상회의 성공개최를 위해 "한국의 과거, 현재와 미래를 모두 느낄 수 있는 인상적인 도시 경주에서, APEC 정상회의가 최고의 성과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동북아시아지방정부연합 회원국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또한, "최근 경쟁과 대립이 부각되고 있는 국제 정세에 이번 워크숍이 회원단체 상호 간 교류와 우호 협력 관계를 더욱 넓히는 네트워크 형성의 장이 되기를 기원하여, 경북도는 동북아 지방 정부 간 다자교류 플랫폼인 NEAR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한편, 동북아시아지방정부연합(NEAR)은 1996년 대한민국 경북도에서 창설된 동북아시아 지방정부 간 국제기구로 중국, 일본, 한국, 몽골, 러시아, 북한 6개국 90개 동북아 지방정부 간 교류와 협력을 통해 지역의 공동발전과 번영의 실현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올해는 NEAR+2(동남아, 중앙아) 정책을 추진하여 동북아 지방외교의 외연을 더욱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동북아지방정부간 공동발전 위한 교류협력 방안 모색하다!

동북아시아지방정부연합, 2025 NEAR 회원정부 워크숍 개최

황지현 기자 news5530@naver.com

등록 2025년03월13일



▲ 동북아시아지방정부연합, 2025 NEAR 회원정부 워크숍 개최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동북아 8개국 90개 광역지방정부의 연합조직인 동북아시아지방정부연합 (NEAR)(사무총장 임병진)은 3월 12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제주 롯데호텔에서 6개국(중국, 일본, 한국, 몽골, 러시아, 키르기스스탄) 46개 광역지방정부, 6개 유관기관 공무원 등 총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NEAR 회원정부 워크숍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NEAR 회원정부 워크숍은 회원정부간 교류와 인적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금년도 행사 계획 및 회원정부의 성공적 정책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매년 개최하는 행사이다.

이번 행사는 과거 실무자 중심에서 부지사, 국장급 간부 등 고위급까지 범위를 확대하고, NEAR 회원단체 간 교류를 증진하는 시간을 별도로 마련하는 등 참석 대상과 행사구성 측면에서 차별점을 두었다.

개회식에서는 ▲임병진 NEAR 사무총장의 개회사와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경상북도의회 박성만 의장 (손희권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 부위원장 대독), 지노비예프 주한러시아대사, 이희섭 TCS 사무총장, 천젠진 주제주중국총영사, 다케다 가쓰토시 주제주일본총영사가 축사를 하는 등 지방정부뿐만 아니라 국가차원에서도 NEAR에 대해 관심과 지지를 표명했다.

이어 열린 워크숍에서는 ▲2025년 NEAR사무국 주요업무 보고 ▲2025년 개최하는 제15차 NEAR 총회(중국 랴오닝성), 청년정책 분과위원회(러시아 크라스노야르스크주) 등 주요행사보고와 ▲경상북도의 APEC 행사준비 동향, 광주광역시의 광주세계양궁선수권대회 등 회원정부 국제행사 추진계획 및 홍보사항 발표가 있었으며, ▲사무국에 바라는 제안사항 및 동북아 공동으로 직면한 문제에 대한 회원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시책이나 제안에 관하여 발표 및 토의가 있었다.



또한, 이번 회원정부 워크숍에서는 회원정부의 사전 신청을 받아 회원정부간 일대일 양자교류의 장을 마련, 총 10개의 회원정부가 외국인 유학생 유치, 경제통상, 문화, 예술 등 교류.협력을 희망하는 다양한 분야에 걸쳐 일대일 소통했다. 이로써 회원정부가 동북아 지방정부 간 다자교류 플랫폼인 NEAR의 유용성을 더욱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

한편, 회원정부 워크숍 개최에 앞서 진행된 'NEAR 한국 회원정부 국제관계대사 간담회'에서는 한국의 시.도 국제관계대사 13명과 실무담당 13명이 참석하여 '동북아 최대 광역지방정부 간 다자교류 플랫폼인 NEAR 내 실화를 위한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참가자들은 동북아 지방외교가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동북아 지방정부 간 중요한 교류협력 플랫폼인 NEAR를 적극 활용하여 동북아 회원정부간 다자교류 협력사업이 활발히 진행되어야 한다는 데에 뜻을 모았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NEAR사무국은 금번에 논의된 NEAR 발전방안에 대한 의견들을 종합, 사무국 운영에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NEAR사무국은 행사 참여자들에게 경주 APEC홍보자료 배포, APEC 홍보 동영상 상영, 경상북도 국제관계대사의 APEC준비동향발표 등으로 경주 APEC행사를 적극 홍보했다.

임병진 NEAR 사무총장은 "이번 행사는 참가 회원정부(6개국 46개), 고위급 참석자(지사,부지사 5명, 국장급 26명) 면에서 역대 최대, 최고 규모로, 행사의 격이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주한러시아대사 등 6개 유관기관이 참석하여 NEAR의 유용성과 국제적 위상이 제고 됐다"고 말했다.

경상북도 강석희 국제관계대사는 NEAR 회원 정부 발표 시간에 2025년 APEC 정상회의 성공개최를 위해 "한국의 과거, 현재와 미래를 모두 느낄 수 있는 인상적인 도시 경주에서, APEC 정상회의가 최고의 성과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동북아시아지방정부연합 회원국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또한,"최근 경쟁과 대립이 부각되고 있는 국제 정세에 이번 워크숍이 회원단체 상호 간 교류와 우호 협력 관계를 더욱 넓히는 네트워크 형성의 장이 되기를 기원하여, 경상북도는 동북아 지방 정부 간 다자교류 플랫폼인 NEAR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한편, 동북아시아지방정부연합(NEAR)은 1996년 대한민국 경상북도에서 창설된 동북아시아 지방정부 간 국제기구로 중국, 일본, 한국, 몽골, 러시아, 북한 6개국 90개 동북아 지방정부 간 교류와 협력을 통해 지역의 공동발전과 번영의 실현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올해는 NEAR+2(동남아, 중앙아) 정책을 추진하여 동북아 지방외교의 외연을 더욱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경북도 2025 NEAR 회원정부 워크숍 성황리 개최

동북아 6개국 46개 광역지방정부 6개 유관기관 참여...동북아지방정부간 공동발전을 위한 교류협력의 場 마련

김선자 sj2317@hanmail.net

등록 2025.03.13 16:10:46



▲ 경북도 2025 NEAR 회원정부 워크숍 성황리 개최

(정도일보) 동북아 8개국 90개 광역지방정부의 연합조직인 동북아시아지방정부연합(NEAR)은 2025년 3월 12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제주 롯데호텔에서 6개국(중국, 일본, 한국, 몽골, 러시아, 키르기스스탄) 46개 광역지방정부, 6개 유관기관 공무원 등 총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NEAR 회원정부 워크숍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NEAR 회원정부 워크숍은 회원정부간 교류와 인적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금년도 행사 계획 및 회원정부의 성공적 정책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매년 개최하는 행사이다.

이번 행사는 과거 실무자 중심에서 부지사, 국장급 간부 등 고위급까지 범위를 확대하고, NEAR 회원단체 간 교류를 증진하는 시간을 별도로 마련하는 등 참석 대상과 행사구성 측면에서 차별점을 두었다.

개회식에서는 ▲임병진 NEAR 사무총장의 개회사와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경상북도의회 박성만 의장 (손희권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 부위원장 대독), 지노비예프 주한러시아대사, 이희섭 TCS 사무총장, 천젠진 주제주중국총영사, 다케다 가쓰토시 주제주일본총영사가 축사를 하는 등 지방정부뿐만 아니라 국가차원에서도 NEAR에 대해 관심과 지지를 표명했다.

이어서 열린 워크숍에서는 ▲ 2025년 NEAR사무국 주요업무 보고 ▲ 2025년 개최하는 제15차 NEAR 총회(중국 랴오닝성), 청년정책 분과위원회(러시아 크라스노야르스크주) 등 주요행사보고와 ▲경상북도의 APEC 행사준비 동향, 광주광역시의 광주세계양궁선수권대회 등 회원정부 국제행사 추진계획 및 홍보사항 발표가 있었으며, ▲사무국에 바라는 제안사항 및 동북아가 공동으로 직면한 문제에 대한 회원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시책이나 제안에 관하여 발표 및 토의가 있었다.

또한, 이번 회원정부 워크숍에서는 회원정부의 사전 신청을 받아 회원정부간 일대일 양자교류의 장을 마련, 총 10개의 회원정부가 외국인 유학생 유치, 경제통상, 문화, 예술 등 교류.협력을 희망하는 다양한 분야에 걸쳐 일대일 소통했다. 이로써 회원정부가 동북아 지방정부 간 다자교류 플랫폼인 NEAR의 유용성을 더욱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

한편, 회원정부 워크숍 개최에 앞서 진행된 'NEAR 한국 회원정부 국제관계대사 간담회'에서는 한국의 시.도 국제관계대사 13명과 실무담당 13명이 참석하여 '동북아 최대 광역지방정부 간 다자교류 플랫폼인 NEAR 내실화를 위한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참가자들은 동북아 지방외교가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동북아 지방정부 간 중요한 교류협력 플랫폼인 NEAR를 적극 활용하여 동북아 회원정부간 다자교류 협력사업이 활발히 진행되어야 한다는 데에 뜻을 모았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NEAR사무국은 금번에 논의된 NEAR 발전방안에 대한 의견들을 종합, 사무국 운영에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NEAR사무국은 행사 참여자들에게 경주 APEC홍보자료 배포, APEC 홍보 동영상 상영, 경상북도 국제관계대사의 APEC준비동향발표 등으로 경주 APEC행사를 적극 홍보했다.

임병진 NEAR 사무총장은 "이번 행사는 참가 회원정부(6개국 46개), 고위급 참석자(지사,부지사 5명, 국장급 26명) 면에서 역대 최대, 최고 규모로, 행사의 격이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주한러시아 대사 등 6개 유관기관이 참석하여 NEAR의 유용성과 국제적 위상이 제고 됐다."고 말했다.

경상북도 강석희 국제관계대사는 NEAR 회원 정부 발표 시간에 2025년 APEC 정상회의 성공개최를 위해 "한국의 과거, 현재와 미래를 모두 느낄 수 있는 인상적인 도시 경주에서, APEC 정상회의가 최고의 성과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동북아시아지방정부연합 회원국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또한, "최근 경쟁과 대립이 부각되고 있는 국제 정세에 이번 워크숍이 회원단체 상호 간 교류와 우호 협력 관계를 더욱 넓히는 네트워크 형성의 장이 되기를 기원하여, 경상북도는 동북아 지방 정부 간 다자교류 플랫폼인 NEAR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한편, 동북아시아지방정부연합(NEAR)은 1996년 대한민국 경상북도에서 창설된 동북아시아 지방 정부 간 국제기구로 중국, 일본, 한국, 몽골, 러시아, 북한 6개국 90개 동북아 지방정부 간 교류와 협력을 통해 지역의 공동발전과 번영의 실현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올해는 NEAR+2(동남아, 중앙아) 정책을 추진하여 동북아 지방외교의 외연을 더욱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전국 대구/경북

경북도 2025 NEAR 회원정부 워크숍 성황리 개최

등록 2025.03.13 16:11:16

크게보기

동북아 6개국 46개 광역지방정부 6개 유관기관 참여...동북아지방정부간 공동발전을 위한 교류협력의
場 마련



▲ 경북도 2025 NEAR 회원정부 워크숍 성황리 개최

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동북아 8개국 90개 광역지방정부의 연합조직인 동북아시아지방정

제주신화월드 리조트 특별 할인

관광지, 레이트 체크아웃, 4만원 추가 시 조식 최대 4인까지
제주신화월드

NEAR 회원정부 워크숍은 회원정부간 교류와 인적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금년도 행사 계획 및 회원정부의 성공적 정책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매년 개최하는 행사이다.

이번 행사는 과거 실무자 중심에서 부지사, 국장급 간부 등 고위급까지 범위를 확대하고, NEAR 회원단체 간 교류를 증진하는 시간을 별도로 마련하는 등 참석 대상과 행사구성 측면에서 차별점을 두었다.

개회식에서는 ▲임병진 NEAR 사무총장의 개회사와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경상북도의회 박성만 의장 (손희권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 부위원장 대독), 지노비예프 주한러시아대사, 이희섭 TCS 사무총장, 천젠진 주제주중국총영사, 다케다 가쓰토시 주제주일본총영사가 축사를 하는 등 지방정부뿐만 아니라 국가차원에서도 NEAR에 대해 관심과 지지를 표명했다.

이어서 열린 워크숍에서는 ▲2025년 NEAR사무국 주요업무 보고 ▲2025년 개최하는 제15차 NEAR 총회(중국 랴오닝성), 청년정책 분과위원회(러시아 크라스노야르스크주) 등 주요행사보고와 ▲경상북도의 APEC 행사준비 동향, 광주광역시의 광주세계양궁선수권대회 등 회원정부 국제행사 추진계획 및 홍보사항 발표가 있었으며, ▲사무국에 바라는 제안사항 및 동북아가 공동으로 직면한 문제에 대한 회원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시책이나 제안에 관하여 발표 및 토의가 있었다.

40세 이상의 남성들을 위한 현실적인 게
임

비염 찌꺼기 만드는 "염증덩어리" 집
에서 뽑는 방법

'취젓' 뜯지 말고 '이렇게' 해결하세요

뇌가 안믿주는 '불면증'...원인은 결국 '이
것'?

또한, 이번 회원정부 워크숍에서는 회원정부의 사전 신청을 받아 회원정부간 일대일 양자교류의

한편, 회원정부 워크숍 개최에 앞서 진행된 'NEAR 한국 회원정부 국제관계대사 간담회'에서는 한국의 시·도 국제관계대사 13명과 실무담당 13명이 참석하여 '동북아 최대 광역지방정부 간 다자 교류 플랫폼인 NEAR 내실화를 위한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참가자들은 동북아 지방외교가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동북아 지방정부 간 중요한 교류협력 플랫폼인 NEAR를 적극 활용하여 동북아 회원정부간 다자교류 협력사업이 활발히 진행되어야 한다는 데에 뜻을 모았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NEAR사무국은 금번에 논의된 NEAR 발전방안에 대한 의견들을 종합, 사무국 운영에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NEAR사무국은 행사 참여자들에게 경주 APEC홍보자료 배포, APEC 홍보 동영상 상영, 경상북도 국제관계대사의 APEC준비동향발표 등으로 경주 APEC행사를 적극 홍보했다.

임병진 NEAR 사무총장은 "이번 행사는 참가 회원정부(6개국 46개), 고위급 참석자(지사,부지사 5명, 국장급 26명) 면에서 역대 최대, 최고 규모로, 행사의 격이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주한러시아 대사 등 6개 유관기관이 참석하여 NEAR의 유용성과 국제적 위상이 제고 됐다."고 말했다.

경상북도 강석희 국제관계대사는 NEAR 회원 정부 발표 시간에 2025년 APEC 정상회의 성공개최를 위해 "한국의 과거, 현재와 미래를 모두 느낄 수 있는 인상적인 도시 경주에서, APEC 정상회의가 최고의 성과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동북아시아지방정부연합 회원국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또한, "최근 경쟁과 대립이 부각되고 있는 국제 정세에 이번 워크숍이 회원단체 상호 간 교류와 우호 협력 관계를 더욱 넓히는 네트워크 형성의 장이 되기를 기원하여, 경상북도는 동북아 지방정부 간 다자교류 플랫폼인 NEAR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한편, 동북아시아지방정부연합(NEAR)은 1996년 대한민국 경상북도에서 창설된 동북아시아 지방정부 간 국제기구로 중국, 일본, 한국, 몽골, 러시아, 북한 6개국 90개 동북아 지방정부 간 교류와 협력을 통해 지역의 공동발전과 번영의 실현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올해는 NEAR+2(동남아, 북동아) 정책을 추진하여 동북아 지방외교의 외연을 더욱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경북도 2025 NEAR 회원정부 워크숍 성황리 개최

동북아 6개국 46개 광역지방정부 6개 유관기관 참여...동북아지방정부간 공동발전을 위한 교류협력의 場 마련

박미영 기자 pmy614@hanmail.net

등록 2025.03.13 16:14:21



▲ 경북도 2025 NEAR 회원정부 워크숍 성황리 개최

(포탈뉴스통신) 동북아 8개국 90개 광역지방정부의 연합조직인 동북아시아지방정부연합(NEAR)은 2025년 3월 12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제주 롯데호텔에서 6개국(중국, 일본, 한국, 몽골, 러시아, 키르기스스탄) 46개 광역지방정부, 6개 유관기관 공무원 등 총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NEAR 회원정부 워크숍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NEAR 회원정부 워크숍은 회원정부간 교류와 인적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금년도 행사 계획 및 회원정부의 성공적 정책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매년 개최하는 행사이다.

이번 행사는 과거 실무자 중심에서 부지사, 국장급 간부 등 고위급까지 범위를 확대하고, NEAR 회원단체 간 교류를 증진하는 시간을 별도로 마련하는 등 참석 대상과 행사구성 측면에서 차별점을 두었다.

개회식에서는 ▲임병진 NEAR 사무총장의 개회사와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경상북도의회 박성만 의장 (순희권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 부위원장 대독), 지노비에프 주한러시아대사, 이희섭 TCS 사

무총장, 천젠진 주제주중국총영사, 다케다 가쓰토시 주제주일본총영사가 축사를 하는 등 지방정부뿐만 아니라 국가차원에서도 NEAR에 대해 관심과 지지를 표명했다.

이어서 열린 워크숍에서는 ▲2025년 NEAR사무국 주요업무 보고 ▲2025년 개최하는 제15차 NEAR 총회(중국 랴오닝성), 청년정책 분과위원회(러시아 크라스노야르스크주) 등 주요행사보고와 ▲경상북도의 APEC 행사준비 동향, 광주광역시의 광주세계양궁선수권대회 등 회원정부 국제행사 추진계획 및 홍보사항 발표가 있었으며, ▲사무국에 바라는 제안사항 및 동북아가 공동으로 직면한 문제에 대한 회원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시책이나 제안에 관하여 발표 및 토의가 있었다.

또한, 이번 회원정부 워크숍에서는 회원정부의 사전 신청을 받아 회원정부간 일대일 양자교류의 장을 마련, 총 10개의 회원정부가 외국인 유학생 유치, 경제통상, 문화, 예술 등 교류.협력을 희망하는 다양한 분야에 걸쳐 일대일 소통했다. 이로써 회원정부가 동북아 지방정부 간 다자교류 플랫폼인 NEAR의 유용성을 더욱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

한편, 회원정부 워크숍 개최에 앞서 진행된 'NEAR 한국 회원정부 국제관계대사 간담회'에서는 한국의 시.도 국제관계대사 13명과 실무담당 13명이 참석하여 '동북아 최대 광역지방정부 간 다자교류 플랫폼인 NEAR 내 실화를 위한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참가자들은 동북아 지방외교가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동북아 지방정부 간 중요한 교류협력 플랫폼인 NEAR를 적극 활용하여 동북아 회원정부간 다자교류 협력사업이 활발히 진행되어야 한다는 데에 뜻을 모았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NEAR사무국은 금번에 논의된 NEAR 발전방안에 대한 의견들을 종합, 사무국 운영에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NEAR사무국은 행사 참여자들에게 경주 APEC홍보자료 배포, APEC 홍보 동영상 상영, 경상북도 국제관계대사의 APEC준비동향발표 등으로 경주 APEC행사를 적극 홍보했다.

임병진 NEAR 사무총장은 "이번 행사는 참가 회원정부(6개국 46개), 고위급 참석자(지사,부지사 5명, 국장급 26명) 면에서 역대 최대, 최고 규모로, 행사의 격이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주한러시아대사 등 6개 유관기관이 참석하여 NEAR의 유용성과 국제적 위상이 제고 됐다."고 말했다.

경상북도 강석희 국제관계대사는 NEAR 회원 정부 발표 시간에 2025년 APEC 정상회의 성공개최를 위해 "한국의 과거, 현재와 미래를 모두 느낄 수 있는 인상적인 도시 경주에서, APEC 정상회의가 최고의 성과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동북아시아지방정부연합 회원국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또한,"최근 경쟁과 대립이 부각되고 있는 국제 정세에 이번 워크숍이 회원단체 상호 간 교류와 우호 협력 관계를 더욱 넓히는 네트워크 형성의 장이 되기를 기원하여, 경상북도는 동북아 지방 정부 간 다자교류 플랫폼인 NEAR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한편, 동북아시아지방정부연합(NEAR)은 1996년 대한민국 경상북도에서 창설된 동북아시아 지방정부 간 국제 기구로 중국, 일본, 한국, 몽골, 러시아, 북한 6개국 90개 동북아 지방정부 간 교류와 협력을 통해 지역의 공동 발전과 번영의 실현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올해는 NEAR+2(동남아, 중앙아) 정책을 추진하여 동북아 지방외교의 외연을 더욱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

2025 NEAR 회원정부 워크숍 성황리 개최

✎ 박영기 ④ 승인 2025.03.13 15:58

동북아 6개국 46개 광역지방정부 6개 유관기관 참여



동북아시아지방정부연합(NEAR)은 제주 롯데호텔에서 6개국 46개 광역지방정부, 6개 유관기관 공무원 등 총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NEAR 회원정부 워크숍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경북 = 서울뉴스통신】 박영기 기자 =동북아 8개국 90개 광역지방정부의 연합조직인 동북아시아 지방정부연합(NEAR)은 12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제주 롯데호텔에서 6개국(중국, 일본, 한국, 몽골, 러시아, 키르기스스탄) 46개 광역지방정부, 6개 유관기관 공무원 등 총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NEAR 회원정부 워크숍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과거 실무자 중심에서 부지사, 국장급 간부 등 고위급까지 범위를 확대하고, NEAR 회원단체 간 교류를 증진하는 시간을 별도로 마련하는 등 참석 대상과 행사구성 측면에서 차별점을 두었다.

개회식에서는 ▲임병진 NEAR 사무총장의 개회사와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경북도의회 박성만 의장(손희권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 부위원장 대독), 지노비예프 주한러시아대사, 이희섭 TCS 사무총장, 천젠원 주제주중국총영사, 다케다 가쓰토시 주제주일본총영사가 축사를 하는 등 지방정

부뿐만 아니라 국가차원에서도 NEAR에 대해 관심과 지지를 표명하였다.

이어서 열린 워크숍에서는 ▲2025년 NEAR사무국 주요업무 보고 ▲2025년 개최하는 제15차 NEAR 총회(중국 랴오닝성), 청년정책 분과위원회(러시아 크라스노야르스크주) 등 주요행사보고와 ▲경북도의 APEC 행사준비 동향, 광주시의 광주세계양궁선수권대회 등 회원정부 국제행사 추진계획 및 홍보사항 발표가 있었으며, ▲사무국에 바라는 제안사항 및 동북아가 공동으로 직면한 문제에 대한 회원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시책이나 제안에 관하여 발표 및 토의가 있었다.

이번 회원정부 워크숍에서는 회원정부의 사전 신청을 받아 회원정부간 일대일 양자교류의 장을 마련, 총 10개의 회원정부가 외국인 유학생 유치, 경제통상, 문화, 예술 등 교류.협력을 희망하는 다양한 분야에 걸쳐 일대일 소통하였다.

회원정부 워크숍 개최에 앞서 진행된 'NEAR 한국 회원정부 국제관계대사 간담회'에서는 한국의 시.도 국제관계대사 13명과 실무담당 13명이 참석하여 '동북아 최대 광역지방정부 간 다자교류 플랫폼인 NEAR 내실화를 위한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NEAR사무국은 금번에 논의된 NEAR 발전방안에 대한 의견들을 종합, 사무국 운영에 반영할 예정이다.

NEAR사무국은 행사 참여자들에게 경주 APEC홍보자료 배포, APEC 홍보 동영상 상영, 경상북도 국제관계대사의 APEC준비동향발표 등으로 경주 APEC행사를 적극 홍보하였다.

임병진 NEAR 사무총장은 "이번 행사는 참가 회원정부(6개국 46개), 고위급 참석자(지사,부지사 5명, 국장급 26명) 면에서 역대 최대, 최고 규모로, 행사의 격이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주한러시아대사 등 6개 유관기관이 참석하여 NEAR의 유용성과 국제적 위상이 제고되었다."고 말했다.



박영기 pakryk2002@naver.com